

# 청소년문화와 국어교육의 소통을 위하여

박복선\*

## 1.

저에게 주어진 주제는 '청소년문화와 국어교육'입니다. '청소년문화'란 말이나 '국어교육'이란 말이나 뜻이 대단히 넓기 때문에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말을 할 수 있을 텐데, 저는 '학교교육의 위기' 혹은 '학교붕괴'라는 맥락에서 이야기를 풀어 갈까 합니다. 기획하신 분의 의도를 정확히 짚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저로서는 '청소년문화'와 '국어교육'이라는 말의 어색한 조합에서 지금의 국어교육에 대한 모종의 위기의식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흔히 '학교교육의 위기' 혹은 '학교붕괴'라고 부르는 그것에 닿아 있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최근 몇 년간 증병에 걸린 학교교육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어지러울 정도로 쏟아져 나왔는데, 그것들 대부분은 학교붕괴의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로 '교사와 학생의 의식 차이', '학교문화와 청소년문화(대중문화)의 갈등', '사회의 변화 속도와 학교 변화 속도의 격차'를 들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이것을 "요즘 아이들과는 말이 통하지 않아"라는 간단명료한 말로 나타내곤 합니다. 자기 자리에 따라 강조점이 다르긴 하지만 이것들은 모두 '청소년문화'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지 않고는 더 이상 교육을 말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

\* 『우리교육』 편집장.

국어교육계에서도 이런 흐름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10여 년 전부터 대중문화를 가르친 교사들이 있었고(가르쳤다가보다는 일반적으로 비판했다는 말이 더 정확할 거 같습니다), 최근에는 관심이 깊어지면서 초보적이지만 미디어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도 몇 년 전부터 청소년문화를 국어교육과 연결하려는 시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그 동안 나온 글들을 살펴보았는데, 제가 막연하게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많은 진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체언어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도 있었고, 대중문화 수용의 문제를 다룬 것도 있었고, 문식성(literacy) 개념을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고, 국어교육을 문화적 실천으로 보는 입장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들은 강조점이 다르고 이 중에 어떤 것들은 직접적으로 '청소년문화'를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대개 청소년문화의 변화를 염두에 두면서 국어교육이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논지를 펴고 있으며 이런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는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사실 저는 이런 주장들에 대해 정면에서 반박하는 글을 보고 싶었는데 제가 과묵한 탓인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움직임을 즐거운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간의 학교위기에 대한 담론들이 교실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 맴돌았던 것을 생각하면 이런 움직임은 실질적으로 수업을 바꾸는 뜻 깊은 일이라고 높이 평가합니다. 저는 대부분의 글을 재미있게 읽었고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불만도 없지 않습니다. 그건 어느 특정한 글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전체적인 논의의 구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아주 단순화시켜 말하자면, 이것들은 아이들이 판타지를 읽으니 판타지를 비판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영상 매체의 비중이 커지고 있으니 영상 언어도 익히도록 해야 하고, 신문이 정보를 심하게 왜곡하고 있으니 신문 비평도 해야 하고, 게임은 새로운 형태의 서사물이니 이것도 가르칠 가치가 있다는 식으로 국어교육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기존의 국어교육의 틀에 새로운 것 몇 가지를 추

가하는 식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이 부분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흔히 "위기는 기회"라고 합니다. 지금 국어교육이 위기라면 그것은 곧 새로운 국어교육을 세울 기회가 되겠지요.

저는 고등학교에서 8년 넘게 국어를 가르쳤고, 3년 동안 전국국어교사모임에서 연구사업을 총괄하는 일을 했고, 5년 넘게 교사들을 위한 잡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 주최하시는 분들께서 이런 경력 때문에 국어교육에도 무언가 할 이야기가 있고 청소년문화에도 무언가 할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오해를 하신 거 같은데, 사실 저는 어느 쪽에 대해서도 깊은 이야기를 할 안목이 없습니다. 그러나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에 의존해서 조금 과격하게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 2.

국어교육에서 청소년문화를 문제 삼는 것은 그들의 커뮤니케이션 환경과 방식을 지금의 국어교육의 틀에서는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제안이 나오는 것이고 저는 그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기존의 국어교육이 아이들의 삶 혹은 청소년문화와 유리됨으로써 자기 역할을 못했다고 말하기 전에 국어교육의 기본적인 틀이 아이들의 언어생활을 억압하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교육의 위기는 학교가 아이들 문화를 열심히 좇지 않아서가 아니라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국어교육의 역사를 보면 4차 교육과정기까지 중등학교의 국어교육이란 대학의 국어국문학과에서 배우는 것을 '대단히 유치한 방식으로' 축소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어느 교수는 이것을 "중등학교는 대학의 식민지"라고 표현합니다.) 교과서에 교사가 불러주는 문법 용어와 수사법 용어를 빼곡히 채우는 것이 그 때의 수업 풍경입니다. 그러다 5차 교육

과정에서 국어교육의 목표를 '언어기능의 신장'이라고 내세우면서 국어교육의 틀은 그야말로 혁명적으로 변합니다.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이들의 언어 현실을 인위적으로 나누어 반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제가 보기에 치명적인 것은 언어기능의 이론을 직접 가르치겠다는 발상이었습니다.

능숙한 독자는 글을 읽으면서 글 내용과 관련되는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을 최대한으로 활용한다. 배경 지식의 동원은 내용의 이해에 크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숨겨진 의미를 추리하고 더 나아가 글을 비판적으로 읽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추리나 비판의 내용이 독자의 배경 지식에서 나오기 때문이다.<sup>1)</sup>

이것은 어느 『독서』 교과서에서 뽑은 글입니다. 학생들에게 스키마 이론을 직접 설명하는 것은 '인간의 사고 과정'에 대한 지식을 전해 주기 위해서라면 몰라도, 독서 능력을 기르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글을 읽을 때는 자신의 배경지식이나 경험을 동원하지요. 학생들이 독해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이런 이론을 몰라서가 아니라 독서 경험이 빈약하고 체험의 폭이 좁아 활용할 만한 스키마가 없기 때문이라고 보는 게 옳을 것입니다. 독서 이론에 대한 지식은 심리학 강의나 국어 교사를 대상으로 한 강의에서라면 흥미 있게 다룰 수 있는 것이지만,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과서에서 다루기는 심히 부적절한 것이라고 봅니다.

스키마이론이 유용한 점은 폭 넓은 독서와 생활 체험이 가장 확실한 독서 능력을 기르는 길이라는 상식을 과학적으로 확인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이론을 직접 가르치는 데 시간을 보내느니 차라리 아이들이 읽고 싶은 책을 마음대로 골라 읽게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교사의 역할이 있다면 책을 고를 때 유용한 정보를 주는 것이고, 읽은 것에 대해 생각을 나누는 것이겠지요. 아이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이런 국어교육입니다. 지금의 국어교육은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언어 체험

1) 조남현 외, 『독서』, 한샘출판사

을 축적해 가며 언어 능력을 키우는 것을 오히려 방해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즐거움을 내 주는 대신에 아이들이 얻는 것은 전문적인 용어뿐입니다.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하는 것은 국어교육 철학의 빈곤입니다.<sup>2)</sup>

저는 이런 철학을 바꾸지 않는다면 영화를 가르치든, 만화를 가르치든, 무협지를 가르치든 국어교육이 더 나아질 게 없다고 봅니다. 정현선의 말을 빌려 표현하자면 “학생들의 삶에 있어 대중문화, 그리고 그것이 소통되는 경로인 다양한 미디어의 중요성 및 이에 대한 교육적 접근의 필요성을 국어교육 내에 수용하지는 않론은 단지 국어교육의 내용적 영역을 확장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국어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이라는 거창한 말을 쓴 것은 이런 현실을 지적하기 위함이었습니니다.

저는 무엇보다 국어교육을 보는 관점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현선은 “국어교육을 ‘리터러시 교육(literacy pedagogy)’이라는 보다 넓은 커뮤니케이션 교육의 영역 속에서 그 위상과 사회적 역할을 재고”하는 제안을 합니다.<sup>3)</sup> 저는 이런 제안에 적극 동의합니다. 다만 ‘리터러시’라는 말보다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는 말이 마음에 더 드는데, 리터러시라는 말은 아무리 그 영역을 확장한다 해도 ‘텍스트 읽기’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파이프라인 모델’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말하자면 커뮤니케이션의 역동적인 과정을 담아내는 데는 무언가 부족한 느낌이 든다는 거지요. (저만의 느낌인지 모르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은 언어적 소통(어떤 경우든 언어는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매체로서 존재하겠지요.)과 비언어적 소통, 신체 언어에 의한 소통을 두루 포함할 수 있으면서 나아가 담론의 생산과 소비 과정 그리고 그것을 둘러싼 권력에 대한 성찰까지를 포괄할 수 있는 말입니다. 게다가 “미디어는 메시지다”라는 맥루한의 말로 요약되는 매체 자

2) 이 부분은 박복선, 독서 가로막는 독서 교과서(『중등 우리교육』, 1998년 10월호 게재)를 요약한 것임.

3) 정현선, 성찰적 문화교육으로서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국어교육연구』14호, 2002.

체에 대한 성찰까지를 포괄하는 말로 쓸 수 있겠습니까.

### 3.

어떤 용어를 쓸 것인가는 저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의사소통 매체와 방식은 대단히 다양하고 복잡해 졌기 때문에 과거의 국어교육의 틀로는 소통능력을 가르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음의 글은 맥락에서 음미할 만합니다. 조금 길게 인용해 보겠습니다.

1999년 당시 주요 이슈 가운데 하나가 휴대폰 에티켓이었다. 당시에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도덕주의적 입장에서 "휴대폰은 긴급한 때와 꼭 필요한 때만 써야 한다."고 거의 동어 반복적 강조법으로 주장했다. 나는 이런 주장의 허구를 직시하고 문명적 변동의 일상적 효과를 관찰하라는 뜻에서 '이동하는 공동체'라는 견해를 폈다.

내 입장은 이런 것이었다. 휴대폰 현상을 냉장고나 세탁기 같은 문명 이기의 보급과 전혀 다른 차원에서 보아야 하는 것은 물론, 그것이 손목시계나 워크맨 같은 대표적 휴대 물체와도 차별화된 휴대성을 지닌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휴대폰은 공동체를 구성하는 매체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인간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준다. 내가 버스 안이라는 사회 공간에서 통화를 하고 있으면 나는 통화 상대와 또 다른 사회 관계를 형성한다. 몸이라는 실체가 있는 장소의 사회적 공간과 '대화의 장'이라는 사회 공간이 동시에 구성된다. 나는 이것을 '사회 속의 사회 구성' 또는 '사회 관계의 중첩' 현상이라고 부른다.

휴대폰을 단순히 전통적 도구 사용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이동하는 쌍방향 소통 매체로 보고 그 특성을 잘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공적인 업무에서부터 개인 사이의 사사로운 일들까지 휴대폰으로 그때그때 소통해야 하는 데에 매우 익숙해진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즉 휴대폰은 다양한 사회 관계와 문제 해결의 통로를 항상 지니고 다니는 것과 같다.

이제 휴대폰은 긴급할 때만 쓰는 문명 이기가 아니라 일상의 대화와 사건이 이루어지는 '공동체의 장'이 되었다. 따라서 "꼭 필요할 때만 써라."라는 충고는 그

의미를 상실한다. 휴대폰 사용이 급속히 증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오늘날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는 통로'이기 때문이라는 인식을 갖고 그것이 제시하는 다양한 상황과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그런데 이제 이 입장을 좀 보완할 필요가 생겼다. 1천만이란 사용자가 더 늘어서가 아니라, 사용 양상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당시에도 이동 통신과 정보 미디어의 합성 사용을 관찰했고, 우리 나라에서 휴대폰 세대와 인터넷 세대가 일치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차이점은 오늘날 그런 합성 사용의 폭이 매우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휴대폰에 게임 소프트웨어가 덧붙고 모바일 인터넷 기능이 합성된 것은 물론, 2.5세대나 3세대 이동 통신이 일상화되면 PDA의 통합을 비롯해 그야말로 다기능 단말기가 등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단말기의 기능이 주로 통화에 국한될 때에는 '이동하는 공동체' 형성이 휴대폰의 주임무였다. 즉 소리를 통해 '사람과의 관계 맺기와 상호 소통하기' 외에는 별로 쓰이지 않았다는 말이다. 그런 사용은 사람 사이의 참 다정다감한 인간미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네가 Call하지 않고 배기나 봐라. 내 휴대폰은 항상 열려 있어." 등의 광고 문구가 효과적이었다.

하지만 복합 기능이 우세해지면서 통화 공동체 형성에 할애하는 시간만큼이나 나 홀로 단말기와 씨름하는 시간이 늘어났다. 그렇게 되면 공동체 형성보다 '자기 고립화' 현상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sup>4)</sup>

이 글의 필자에 의하면 1999년부터 2002년까지 불과 3년 동안 휴대폰 사용자는 2000만에서 3000만으로 늘었고 휴대폰은 몇 번의 진화를 했다고 합니다. 테크놀로지와 미디어 그리고 주체가 어울려 새로운 방식의 커뮤니케이션을 만들어 가는 모습을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기존의 국어교육적 관념으로는 휴대폰이라는 매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말은 "통화는 간단하게" 정도가 아닐까 합니다. 국어교육의 지평을 넓히지 않고는 교육적으로 개입할 지점이 없습니다.

물론 이런 식의 커뮤니케이션의 변화는 청소년의 것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 전반의 변화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기성세대보다 변화에 민감하고 테크놀로지에 익숙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

4) 김용석, 『일상의 발견』, 푸른숲, pp.32~34.

을 과장하여 마치 청소년문화를 신천지로 보거나, 청소년을 기성세대와 소통이 불가능한 '신인간'으로 보는 관점은 적어도 교육계에서 취할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변하는 쪽을 보면 변화의 폭이 대단히 크지만 변하지 않는 쪽을 보면 변화의 폭은 의외로 미미할 수도 있습니다. 변화의 폭에 관심을 기울이기 보다는 그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변화를 만들어 가는 것은 어떤 힘인지에 관심을 두는 게 우리에게서 훨씬 생산적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 (아시아의 저널리스트들이) 성공의 요인을 물어올 때면 나는 매우 난처해진다. 한국의 청소년들이 그렇게 빨리 인터넷 키드가 된 것은 한국의 10대들이 일본이나 대만의 10대들에 비해 실제 공간에서 서클 활동도 할 수 없고, 아르바이트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말을 할 것인가? 두발 자율조차 허용되지 않는 '감금' 상황에서 공부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입시생 아이들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용이한 탈출구가 인터넷이었으며, 인터넷을 통해 이들은 집에 앉아서 부모의 눈을 피해 열렬하게 채팅을 하고, 팬클럽 시늉을 하고 있다고 말해도 될까? 기존 관계의 붕괴가 인터넷 열풍의 심리학적 요인이라고 그들에게 꼭 밝혀야 할까? 그들에게 알려줄 자랑스러운 문화적 요인은 왜 생각이 나지 않을까?<sup>5)</sup>

조혜정의 글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청소년문화라는 것은 실상 청소년들의 척박한 삶이 테크놀로지와 결합해서 만들어 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학교와 가정 그리고 사회로부터 단절된 아이들에게 인터넷은 놀이터이자 새로운 방식의 관계 맺기 훈련장이며 새로운 체험의 장입니다. 아이들이 인터넷에 몰리는 것이 물론 학교붕괴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율적인 공간이라고는 전혀 없는 아이들이 가상공간에서나마 자신들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시험해 보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별로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말하자면 아이들은 소통 단절의 시대에 새로운 소통을 실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이들이 좋은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실험 결과들을 교육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우리들의 임무가 아닐까 합니다.

5) 조혜정, 인터넷과 문화, 조혜정 교수 홈페이지에서

#### 4.

새로운 매체 속에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만들어 낸 사례는 대단히 많습니다. 특히 인터넷은 그야말로 새로운 소통의 실험장이라고 할 만합니다. 아이들은 사이버 공간에 자신들의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방문객들과 자료도 교환하고 이야기도 나눕니다. 대개 소박하지만 문제는 '나만의 방'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한 고등학생이 움베르토 에코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2000년에 전국중고등학생연합과 인터넷 사이트(www.idoo.net, www.ch10.com)에서는 두발 제한 반대 서명운동을 벌였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16만 명이 서명에 참여했으며 이러한 열기에 놀란 교육부가 나서 각 학교별로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복과 두발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인터넷의 위력을 유감없이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sup>6)</sup>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채팅은 다양한 언어 사용과 관계 맺기의 실험장입니다. 채팅방에서 주로 쓰이다가 이제는 아이들 시험 답안지에서도 볼 수 있는 이미티콘은 언어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대면 의사소통에서 어조, 표정, 몸짓이 대단히 중요한 구실을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말보다 더 정확하게 의사소통을 하기도 합니다. 이미티콘은 말하자면 그와 같은 기능을 하는 기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잘났어 정말'은 비꼬는 말이지만 '잘났어 정말 ^^'은 농담이 됩니다. 저는 이런 실험과 신경숙이 전화를 기다리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기법이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

6) 이에 대해서는 전유미, 노파심에 일그러진 아이들의 인권, 『중등 우리교육』, 2000년 9월호

전화벨은 울리지 않았다.

은서가 옷장을 열고 어제 차림 그대로 옷을 갈아입고, 가방에 원고와 자료를 넣고, 자동응답기의 메시지 녹음 버튼을 누르고, 석류를 밟았던 자리를 쳐다보며 신발을 신고, 신발장 위에 못을 치고 걸어놓았던 열쇠를 꺼내 문 밖에서 열쇠를 채울 때까지.<sup>7)</sup>

많은 사람들이 개탄하는 채팅의 언어파괴 역시 새로운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방가(반가워), 어쇼요(어서와요) 같은 언어파괴는 점점 심해져서 저처럼 어쩌다 채팅방을 기웃거리는 사람은 따라잡기가 어려워 정돕니다. 며칠 전에는 컴퓨터 바탕 화면에 “예링힛 폴더햏”이라는 제목의 폴더가 떠 있었는데, 몇 번씩 반복해서 읽어 보고 나서야 이게 “예린이 폴더야”라는 것을 해독(?)해 낼 수 있었습니다. 고길섯은 이런 현상을 “갑작스런 사태가 아니라 이미 이전 세대에 의해 역사적으로 축적되어 온 억압구조 혹은 자기 검열의 분열증이 컴퓨터 통신이라는 새로운 글쓰기-말하기 미디어의 출현을 통해 폭발된 것”이라고 해석합니다.<sup>8)</sup>

뿐만 아니라 채팅은 육체적 이미지로부터 탈주한 새로운 관계 맺기의 실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상적 공간에서 다른 사람을 만날 때는 필연적으로 외모, 말투, 스타일, 옷차림, 성, 나이, 계급이 개입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이디 만으로 만나는 채팅방은 그야말로 자유의 공간이고 이상적인 교감을 나누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현실세계에서보다 훨씬 쉽게 친밀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최정은정에 의하면 “현실 상호작용에서 호감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외모’에 대한 정보는 화상채팅이 아닌 한 개인의 상상력에 맡겨지게 되는데, 외모를 중시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온라인에서 호감을 가졌다 하더라도 오프라인 만남에서 외모에 실망하게 되면 관계 단절을 고하는 경우가 많지만, 온라인에서 충분한 대화를 거쳐 서로의 공통점과 감정교류에 신뢰감을 쌓게 되면 현실적 대면관계로 시작했을 때보다 외모가 관계지속여부에 미치는 영향은 상

7) 신경숙, 『깊은 슬픔』, 문학동네, p.55.

8) 고길섯, 채팅, 자유의 새로운 영토, 『문화읽기:빠라에서 사이버문화까지』.

대적으로 적다”고 합니다.<sup>9)</sup> 가상현실의 관계 맺기를 통하여 현실 세계의 관계 맺기의 문제점을 비추어 볼 수 있는 사례가 아닐까 합니다.

그런가 하면 채팅을 통해 평소 경험하기 어려운 경험세계에 들어가 볼 수도 있습니다. “현실의 나는 게이바에 쉽게 발을 들여놓지는 못하지만 사이버스페이스에서는 쉽게 동성애자 채팅방에 들어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들의 입장이 되어 볼 수 있다. 현실에서 아줌마들의 수다에 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채팅방에서는 쉽게 그들 사이에서 녀살을 늘어 놓을 수도 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야후 채팅방에 들어가 콜로라도 주에 사는 15세 소년의 이야기를 들어 줄 수도 있다.”<sup>10)</sup> 이런 의미에서라면 인터넷에서의 서핑은 그야말로 바람 따라 구름 따라 떠돌아다니는 여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저는 신동훈의 연구가 대단히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sup>11)</sup> 그는 사이버 공간에서 “문화의 존재형태와 소통방식에 일대 변혁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사이버 공간의 문학 동호회, 유머방, 스타팬클럽 등에서 유통되는 글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는 글의 수준 여부를 떠나 “자발적인 문학적 표현과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 그리고 “그를 통하여 자발적인 삶의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그는 현실에서 사라진 문학행위와 사이버공간에서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고무된 것입니다. 그가 보기에 사이버공간은 “함께 삶을 나눌 소통의 장을 잃은 채 TV 앞에 혼자 쪼그리고 앉아서 시간을 죽이곤 했던” 보통사람들이 찾아 낸 “새로운 사랑방”입니다.

성모가 은우를 데려온 곳은 작은 카페였다. 학교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구석에 자리한 작은 카페였지만, 아기자기하고 예쁜 인테리어로 여학생들이 자주 찾는 곳

9) 최정은정, 타인에게 맡길기:채팅의 세계, 『선생님과 함께하는 인터넷문화학교 2001』, 사이버문화연구소 교사 워크샵 자료집.

10) 같은 글.

11) 신동훈, 문학전환기에 돌아보는 문학의 개념과 위상, 『전환기 한국문학 연구의 방향』, 민족문화사연구소 창립 10주년 기념 심포지움 자료집.

이었다. 처음 와본 이곳을 은우가 그토록 좋아하는 이유는 카페의 구석구석 진열된 발레인형들 때문이었다. …… (중략) …… 성모는 아르바이트생에게 키위주스 두 잔을 주문했다. 그런 성모의 모습을 보고 있던 은우는 그제야 다시 생각난 듯 성모에게 종알거렸다.

“맞어, 너 아까 내가 물어본 거 대답 안해줬잖아. 얼음공주가 뭐야?”

“하하~ 니가 남자친구가 없으니까 애들이 그런말 하는 거잖아. 예쁜 발레리나 아가씨가 전성대 남학생들을 번번히 바람맞힌다고 소문이 파다하던걸..”

“정말루? 근데 성모야, 나.. 아직 그런거 싫어.”

“어떤거?”

“남자친구.. 같은거, 아직은 해야할 것도 많고..모자란 것도 많은데 발레만 생각하면서 지내고 싶어. 그래야.. 우리 아빠도 좋아하실거야.”

이것은 조성모 팬클럽 소설방에 올라있는 <하늘새의 꿈>이라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른바 '팬픽'이라는 것이죠. 신동훈은 이런 작품에서 "일반 아마추어의 생활적 글쓰기가 '일상의 문학' 단계를 벗어나 본격문학으로의 에너지를 갖추어 나가고 있음"을 본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사이버 공간은 가능성의 공간입니다. 저는 기껏해야 이 메일을 주고받고, 가끔 인터넷으로 책이나 음반을 사고, 어쩌다 필요한 자료를 다운로드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제 삶이 달라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저는 결코 뉴미디어 예찬론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하는 의사소통과 관계 맺기 실험은 큰 의미가 있으며 교육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국어교육을 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화두가 될 것입니다.

## 5.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것은 청소년문화를 국어수업에 들여오는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국어교육과 대중문화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대중문화와 국어교육'이란 주제가 별도로 잡혀 있기 때문에 제가 많은 말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에서 일부 교사들이 이미 오래 전부터 대중문화에 대한 교육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주로 비판교육학의 관점을 바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로 대중문화 텍스트에 대한 이데올로기 분석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HR이나 대중가요 노랫말이 얼마나 심각하게 남녀관계와 성을 왜곡하고 있는지, 신문이나 방송의 뉴스가 얼마나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지, 『인간시장』 같은 소설이 얼마나 황당한지, 광고가 어떻게 사람들을 현혹시키는지를 교사가 직접 설명을 하는 식이었지요.

사실 저도 그런 수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서라도 아이들을 대중문화의 수렁에서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고,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교과서의 구속력이 강했던 때라 사실 다른 방법을 찾기도 어려웠습니다. 말하자면 그때의 대중문화 교육이라는 것은 소위 '의식화 교육'의 일환이었던 셈입니다.

이런 방식의 교육에 대해 일침을 가한 것이 다음과 같은 조혜정의 글입니다. 그는 90학번으로 들어가면서 학생들이 사회운동으로부터 멀어진다고 하면서 "그들이 제기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들은 이미 고등학교 때 '운동권' 출신 교사들로부터 변혁 운동에 대해서 듣고 사회 모순에 대해 알아 왔으며 그래서 대학에 와서 선배들이 떠들어 대는 것이 별로 놀랍지도 않으며, 설득력도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 고등학교 시절 '운동권 교사들은 이들에게 '왜?'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스스로 던지게끔 하였어야 하는데 또 다른 정답을 준 것이었다. 예방주사를 맞은 자기들은 그것으로 인해 맑시즘에 대한 호기심을 잃고 말았다는 것이다.<sup>12)</sup>

조혜정의 진단에 따르면 이들은 이렇게 모든 것을 '가볍게' 알아 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 말에 대해 '또 하나의' 정답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응답했지만 그러한 어설픈 의식화가 "매우 빈약한 교육적

12) 조혜정, 『탈식민지 시대 글 읽기와 삶 읽기 3』, 또하나의문화, pp.151~152.

상상력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sup>13)</sup> 예컨대, 다음과 같은 수업과 비교해 보면 그런 의식화 수업의 빈곤함이 드러납니다.

12학년의 학생들은 8분간 생방송으로 뉴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수업을 하고 있었다. 교실에는 뉴스 캐스터용의 자리가 준비되어 있었고 정면에는 카메라, 모니터, 음성 기자재 등이 마련되어 있었다. 학생들이 준비한 프로그램 진행표에는 뉴스의 메뉴, 읽는 시간 등이 자세하게 쓰여져 있었다. 방송 시간이 가까워지자 디렉터가 진지한 표정으로 각 담당에게 최종 확인을 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 프로그램은 생방송이기 때문에 틀려도 그대로 계속해 주세요." .....처음의 중후한 오프닝에 이어 교통사고, 청소년의 흡연, 비즈니스, 일기예보, 스포츠 등의 뉴스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TV를 보고 있을 때는 8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리지만 실제로는 화면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가지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녹화용 비디오테이프를 제시기에 재생시키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지도를 배경으로 해서 등장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기상 캐스터도 실제로는 파란 종이를 배경으로 촬영되어 컴퓨터 상에서 지도가 합성되고 있다. "일기예보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길게로 해보면서 TV에 대해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라고 화면의 합성 작업을 담당했던 학생이 소감을 말했다. .... 평가회에서서는 흡연에 대한 뉴스에서 뉴스 캐스터가 "담배를 많이 피우는 학생은 성적이 나쁜 경우가 많다"는 전제하에 리포트를 했는데 "통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개인의 의견에 불과하다. 성적이 좋아도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도 많이 있다"고 비판하는 의견이 나왔다. 토론이 일단락 지어지자 스미스 교사는 보도는 의견과 그 사실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sup>14)</sup>

조혜정은 '겉도는 말'을 끊임없이 생산해 내는 교육은 건강한 주체를 형성해 낼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대중문화와 국어교육을 연결하려고 할 때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이것은 굳이 대중문화를 들여오는 데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배우는 것과 삶이 분리되지 않는 것. 여기서 실패하기 때문에 학교교육이 위기에 빠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

13) 박복선, 이 시대의 교사, 『새로 쓰는 청소년 이야기 2』, 또하나의문화.

14) 스기야 이키코, 안해룡·안미라 역, 『미디어 리터러시』, 커뮤니케이션북스.

교에서 대중문화를 수용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바로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아이들의 삶과 의미로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대중문화를 적극적으로 교실로 가지고 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의미화'입니다. 저는 고전문학을 가르칠 때나 대중문화 텍스트를 가르칠 때나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물론 대중문화 텍스트는 그 자체로 아이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것은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아이들은 수업 시간에 '그런 것'을 배우는 것에 대해 신기하게 생각하며(그래서 수업이 잘 됩니다) 자신들에게 친근한 것을 가지고 수업을 하기 때문에 무언가 할 말이 생깁니다. 그러나 배우는 것과 아이들의 삶 사이에는 어떤 식으로든 시간과 공간 그리고 문화적 '거리'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 거리를 좁히는 것이 교사들의 역할임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 6.

엄기호는 십대 청소년의 포르노 수용에 대한 글의 말미에서 “학교에서 포르노를 틀 수 있을까?” 하고 도발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에 답을 하기가 난처하다면 점잖은 말로 바꿔 볼 수 있겠습니다. '대다수의 아이들이 포르노를 보는 현실에 학교는 어떻게 개입할 수 있을 것인가'로. 질문을 돌려 봐도 쉽게 답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엄기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으로 십대들이 성에 대해, 아니 비단 성뿐만 아니라 삶에 대해 성찰적 주체가 되기를 바란다면 슬럼화되고 공동화되어 있는 나머지 50분(쉬는 시간 10분을 위해 수업 시간 50분을 배우는 아이들의 현실을 지적하는 말입니다)을 학생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십대들이 못된 어른들 성문화를 따라 한다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 어른들 문화를 극복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성문화를 성찰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제공

해야 한다. 그것을 위해 마련된 시간이 바로 '수업 시간' 아닌가? 이제 학교는 수업 시간에 포르노를 틀 정도로 용감해야 한다.<sup>15)</sup>

〈소나기〉, 〈별〉, 〈동백꽃〉을 벗어나지 못하는 국어교육의 현실에서 보면 대단히 도전적인 말입니다. 몇 년 전에 전국국어교사모임 연수에서 당시 교과서를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왜 교과서에는 그렇게 재미없는 글만 실리느냐?”고 했더니 “성 묘사가 안 나오는 좋은 글이 있으면 가지고 오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이런 말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지금의 상태에서는 학교가 십대들의 성에 대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 성교육을 하는 학교가 늘고 있지만 그것도 아이들이 인터넷과 비디오에서 얻는 것에 비하면 그야말로 미미한 것이어서 또 하나의 따분한 수업이 될 뿐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현실에 개입할 힘이 없을 때 학교는 무의미한 공간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학교붕괴인 것입니다.

물론 이게 국어교사들이 해야 할 일이냐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국어교사들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일은 아니지만 어떤 교사도 이 질문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포르노야 틀 수도 있고 안 틀 수도 있는 것이지만 기껏해야 수십 년 동안 〈소나기〉, 〈별〉, 〈동백꽃〉을 교과서에 실는 무욕의 경지에는 경이감마저 느껴집니다.

조금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그렇지 이 문제는 사실 대중문화를 수업에 가져오려고 할 때 늘 따라오는 것입니다. 대중매체 특히 TV가 어른들의 비밀의 화원을 공개함으로써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개탄하는 포스트만은 “(어른들의 비밀의) 솔직한 대가가 무엇인가?” 묻습니다. 어떤 점에서 기존의 국어교육은 포스트만의 뒤를 따르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포스트만의 견해는 여러 가지로 비판을 받고 있지만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입장을 따를 때

15) 엄기호, 『포르노, All boys do it』, 우리교육, p.132.

사실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점에서 그것은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16)

저에게도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저는 자신들의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아이들, 그리고 그것을 적절하게 돕는 교사들이 각자 자기에게 맞는 답을 찾아 갈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과 같은 사례는 그래도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아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한 비평적 토론 예컨대, 대중음악, 영화, 패션, 건축, 연극, 만화, 게임과 같은 장르에 대한 비평적 토론을 몇 차례에 걸쳐서 진행한 뒤에 아이들은 아주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었다. 그것 중의 하나는 바로 아이들이 기성세대도 어렵거나 재미없어서 읽기 귀찮아하는 여러 가지 대중문화 비평 잡지의 글들을 호기심을 가지고 접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 중의 한 아이와는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어떤 아이가 『리뷰』라는 대중문화비평지를 보고 있었다. 필자는 그 아이에게 농담 비슷하게 “야, 니가 그거 읽으면 무슨 소린지 아냐. 어렵지 않아?”라고 말했다. 그 친구는 웃으면서 대답했다. “어려워요. 단어나 문장이 이해가지 않는 게 많아요. 그치만 …… 무슨 소리하는 건지는 알겠어요. 음 … 그냥 … 느낌이 그래요. 아, 이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구나. 아, 이런 음악은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해석되는구나 … 해해 … 사실은요 … 그냥 이해되는 문장을 중심으로 읽어요. 해해 …” 그래서 필자는 물었다. “재미있냐?” 아이는 꽤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럼요!”17)

결국 교사의 문제로 돌아온 셈인데, 사실 청소년문화를 국어교육과 제대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교사의 역할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사에게 그 작업이 쉽지 않은 것은 고급문화든 대중문화든 교사들이 문화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문화라는 것은 꼭 빠져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청소년문화를 함께 경험할 수 없는 교사들이 대부분이라면 청소년문화와 국어교육을 논하는 것

16) 널 포스트먼, 임채정 역, 사라지는 어린이, 분도출판사, p.108, 포스트먼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다음 책을 참고. 버킹엄, 정현선 역, 『아동기의 죽음, 그 이후』, 우리교육 출간 예정.

17) 송재희, 관심을 지적 비평으로 바꾸어내기, 『중등 우리교육』 1998년 10월호.

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문화 교육은 교과서만으로 할 수 없다는 것. 저는 이 대목에서 늘 막힙니다. 연구하시는 분들께는 좀 먼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 거리를 좁히는 지혜가 필요할 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초록〉

## 청소년문화와 국어교육의 소통을 위하여

박복선

지난 몇 년 동안 흔히 '교실붕괴'로 묘사되는 '학교의 위기'라는 맥락에서 국어교육을 재조명하는 다양한 움직임이 있었다. 국어교육계에서 청소년문화에 대해 논의를 하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 비롯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교실붕괴의 주요인으로 교사문화와 학생문화의 심각한 차이 혹은 격차를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문화에 대한 국어교육적 성찰은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대중문화와 미디어에 대한 관심이 반영되었으며 문화적 문해력과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이론적 논의도 활발해 졌다.

그러나 이런 작업들은 기존의 국어교육 틀에 몇 가지 요소를 병렬적으로 덧붙이는 식으로 이루어지는 한계를 보인다. 이 글은 국어교육 영역에서 교육의 위기는 단순히 청소년문화를 교육에 반영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국어교육의 틀과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새로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요즘의 청소년들이 급변하는 미디어환경 속에서 어떻게 자신들의 의사소통 방식과 능력을 확장해 가는지 성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그리고 아이들로 하여금 창조적이고 비평적인 방식으로 자신들의 언어에 대해 성찰하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한다.

【핵심어】 '교실붕괴', '학교의 위기', 언어, 대중문화, 미디어

〈Abstract〉

## **Bridging the gap between youth culture and Korean language education**

**Pak, Bok-seon**

There have been various attempts to rethink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the past few years, in the context of the 'crisis of schooling' which is often described as the 'breakdown of classroom'. It is broadly agreed that the 'breakdown of classroom' is caused by the huge differences between teachers and young students that exist in Korean schooling today, in terms of the kinds of learning that each party regards as meaningful to the lives of students.

In this context, the attempts to reflect youth culture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have certainly made some progress. Such progress can be found in the ways that the recent curriculum and the textbooks, as well as the theoretical discussions, have included the areas of language use that were often considered as inappropriate for young people to learn about, e.g., language in popular culture.

This article argues that while such attempts to include the elements of popular culture can be regarded as a step forward to reflect young people's language use in their everyday lives, more thorough discussions and debates are yet to begin, particularly on why the 'breakdown of classroom' was caused and how Korean language needs to be taught. Such discussions

should include theoretical and practical considerations on how young people today can develop their communication skills with various media (beyond print-based media) and how they can reflect on their own language use that are intertwined with popular media culture in more creative and critical ways.

**【key words】** breakdown of classroom, crisis of schooling, language, popular culture, media